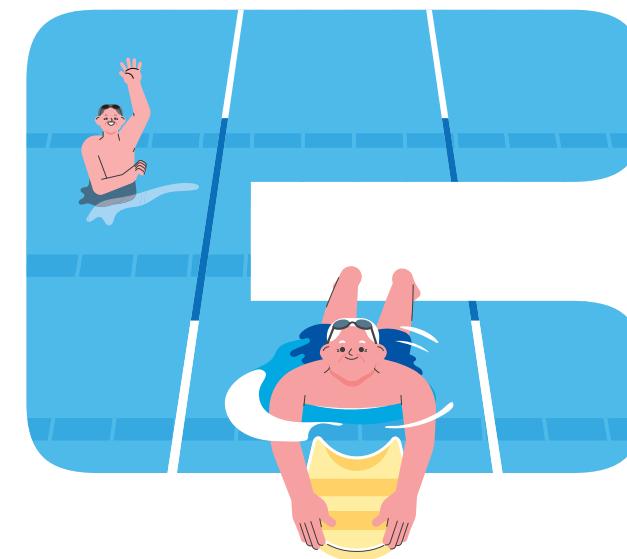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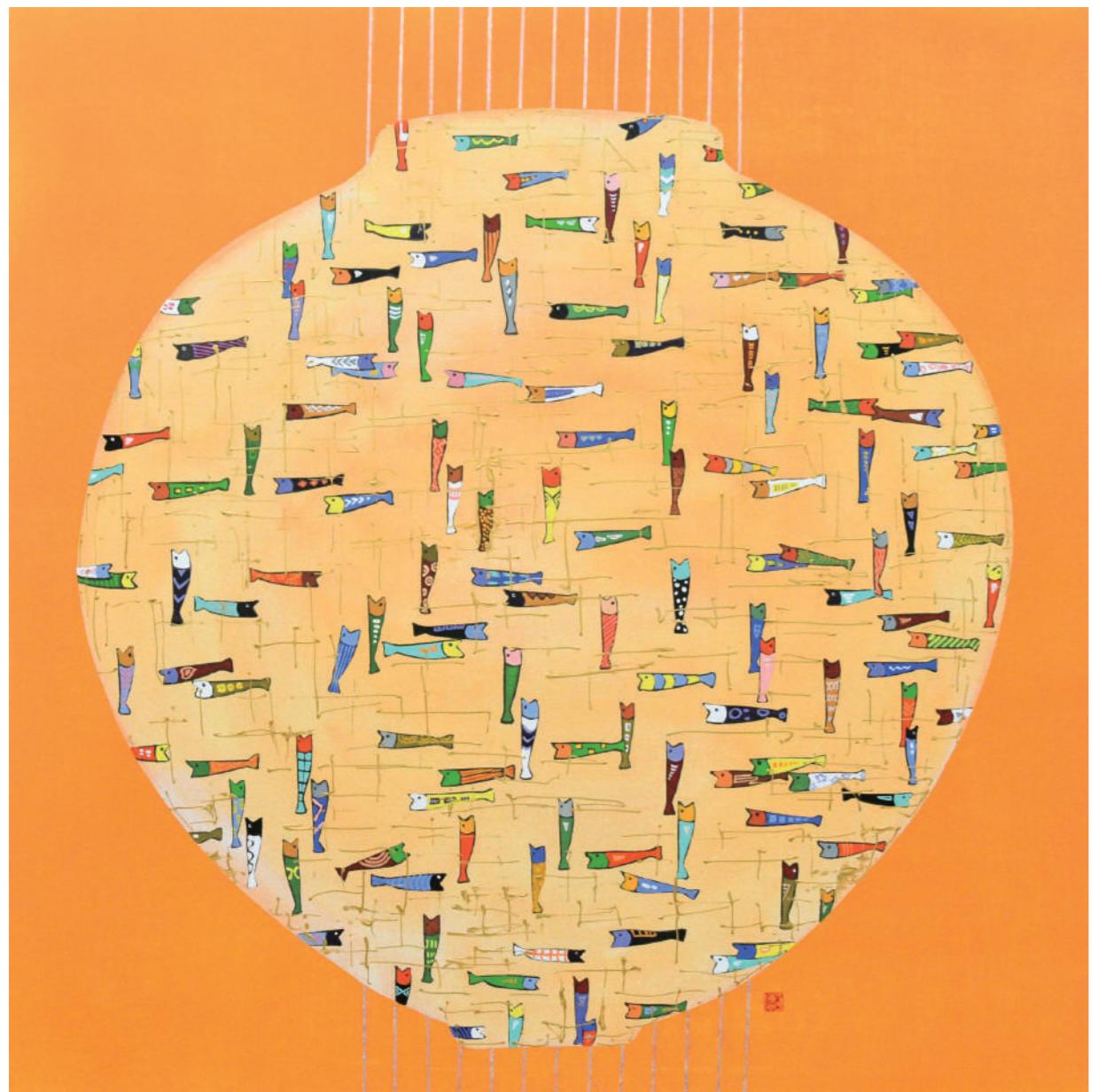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식지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식지

두 번째 이야기 | 2025





〈 열린공간 〉

2024 / 한국화 진채화(장지, 자개, 혼합채색)

강혜인 작가는 경남 사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화 작가이다. 전통 한국화 재료와 기법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흐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물고기', '바다', '흐름'의 이미지를 단순한 형상과 절제된 색채, 여백의 조화로 표현하며 내면의 시간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열린공간」은 물고기와 바다를 통해 자유와 생명력, 즐거움을 그려낸다. 「열린 공간」에 내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삶의 순간마다 희망과 행복으로 펼쳐지길 소망하며, 관람자에게 창의적인 사고의 확장을 제안한다.



빛나다

- 04 리더 한재천 이사장 인사말
- 06 시작 2025년 신입사원 인터뷰
- 08 포커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발자취
- 10 지금 한눈에 보는 공단 시설현황
케이블카사업팀 소개

채우다

- 14 청찬 오늘도 빛나는 푸른 물결 같은 사람
- 16 프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 20 리포트 재능봉사 동아리 '만능수리공'
- 22 동행 문경을 품고, 사천에 살다
- 24 만남 20년 지기, 같은 물결 위에서 만나다



강혜인(Kang, Hae In)

소개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18회 등

현 (사)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 부지회장
경남선면예술기협회 회장
사천미술협회원 등

역임 사천시 공공미술교육부(학생부) 강사
경남미술대전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 등

나누다

- 26 에세이 가을 휴가 보내기
- 28 여행 경남 사천, 가을 여행지 추천 BEST 4
- 30 트렌드 엠비버트 & 오트로버트
- 31 공지사항 사천시민과 직원에게 알립니다

발 행	2025년 12월(통권 제2호)
발 행 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52554)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20(대방동)
발 행 인	한재천 이사장
기획·편집	경영기획팀 T. 055) 831-7200 F. 055) 831-7209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모여

Leader's Message

‘너나들이’ 두 번째 장을 업니다

‘너나들이’ 창간호를 처음 선보이던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설렘과 벽참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제2호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 반갑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창간호를 펴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그 설렘을 힘으로 삼아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25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만능수리공 봉사활동, 사회공헌 네트워크 헌혈 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다양한 사업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며 공단을 지탱해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너나들이’ 제2호에는 우리 공단의 밝은 얼굴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신입사원들의 당찬 이야기, 서로를 응원하는 ‘칭찬 어워

드’, 현장의 하루를 생생히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나눈 여행·맛집 에세이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창간호가 공단의 첫 발자국을 기록한 책이었다면, 이번 제2호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발자취를 담은 이야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며,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조직, 시민에게 신뢰받고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지방공기업— 그런 공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소식지가 바쁜 하루 속 작은 쉼표가 되어, 잠시 웃음을 짓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너나들이’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소식지로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천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 2025년 신입사원 인터뷰



경영기획팀 김경화 주임

경영기획팀 신입, 2025년 5월 입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직은 경쟁이 치열한데요. 서류나 면접 단계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을 알려주세요.

우선 저는 회계학과를 나왔고요, 현재 경영기획팀에서 회계, 지출 및 지역사회 공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기에 회계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두었습니다.

특히 저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먼저 취업한 선배들에게 첨삭을 받고, 몇 번이고 다듬어가며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미리 파악한 공단 사업과 저의 경험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화 주임님.

입사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공단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입사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공단에 계신 멋진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지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고향인 사천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었고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생활 편의와 공공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본인만의 전략이나 마음&건강 관리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에 8~9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했는데요.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언제나 기분 좋다. 2025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반가운 얼굴들이 합류했다. 서류의 벽을 넘어 묵묵히 도전해온 행정직 신입 김경화 주임, 그리고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공단에 힘을 더할 기계직 경력자 강득모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환경시설1팀 강득모 대리

기계직 경력, 2025년 10월 입사

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며 운영 구조상 하수처리시설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채용을 기다렸습니다.



목표로 삼다 보니, 기술·기계직이라면 당연히 현장 실무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개선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술직 혹은 경력직으로 공단 입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

신입이든 경력이든 기술·기계직은 현장 일을 하면서 배우는 작은 경험과 경력이 자금심이 됩니다. 부족한 업무는 배우면 되는 것이니, 겸손한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득모 대리님.

새 직장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환경시설1팀에 대한 첫인상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 강득모입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종설 처리시설과 지하 공동구는 다른 데에 비해 청결하고, 설비점검 등 이동 동선이 잘 짜여 있어 좋은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경험을 쌓아오셨나요?

공단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처리시설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종합시운전 등을 포함하여 하·폐수처리시설에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인력 관리시스템에 아쉬움이 생겨 공단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입사는
경력직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은데요. 준비 과정에서 집중하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NCS 평가와 기계공학 전공 시험이 특히 어려웠는데요. 두 시험 과목 모두 범위가 방대하고 난도(難度)가 있기에, 처음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NCS를 한번 접했었기에, 타 시설 공단 유사 수준의 몇 가지 관련 서적을 공부했고, 전공 시험은 역학의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계직으로 지원할 때 공단이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단은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2023



2024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발자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과 성과들을 한눈에 담아, 공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2025



한눈에 보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시설 현황

2025. 11. 기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사천시와 사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
 -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사천바다케이블카

- 바다, 섬, 산을 잇는 대한민국 최초의 케이블카
 - 자동순환 2선식으로 흔들림 최적화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 사천시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및 종합체육 및 문화센터
 - 수영과 운동뿐 아니라 음악, 탁구,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천시실내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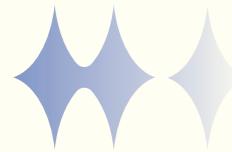
- 사천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등 수영장
 - 전문적인 수영 강습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체력단련장에 마련됨



환경기초시설

-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분뇨, 하수 정화 및 운영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사천, 용현, 곤양, 서포, 삼천포 외 소규모 27개소)
 - 분뇨 / 가축분뇨 3개소
 -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사천시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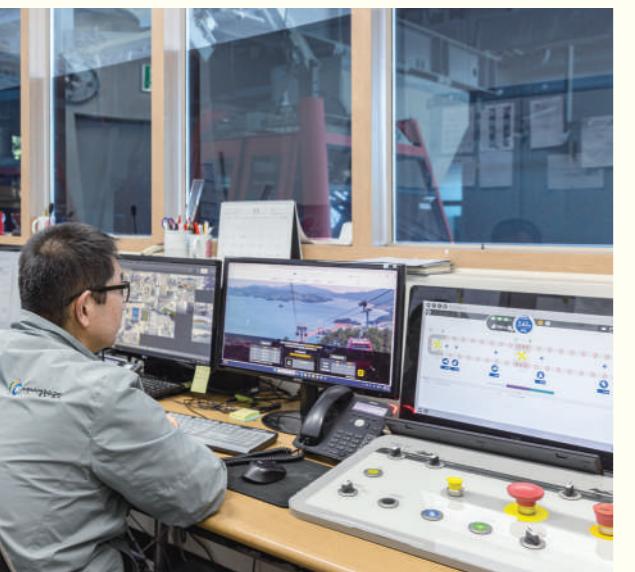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사업팀

빛나는 하늘길을 가로지르는 사천시 케이블카. 사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최고의 관광지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 멋진 시설물이야말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는 일명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길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케이블카사업팀에 대해 케이블카사업팀 신동민 대리에게 물어보았다.

하늘길을 지키는 사람들

하늘 위를 유유히 오가는 케이블카 한 대, 그 한 바퀴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점검과 준비가 쌓여 있다. 사람들을 맞이하는 고객응대 및 매표 담당부터,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삭도안전관리, 시설 담당자들까지. 그들은 바람의 세기, 기계의 온도, 이용객의 안전까지 매순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INTERVIEW

✿ 안녕하세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기도 한데요. 케이블카사업팀은 어떤 팀인가요?

케이블카사업팀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관광시설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운행 관리·안전 점검·고객 응대·매표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케이블카사업팀에는 어떤 업무들이 있고, 각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케이블카사업팀은 여러 전문 분야의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하나의 완성된 운행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의 역할을 긴밀히 공유하며 '안전'과 '고객 만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삭도안전관리: 탑승 서비스와 운행 전반을 총괄하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계·전기·소방 등 시설 담당: 케이블카 설비와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을 만듭니다.

고객응대 및 매표 담당: 친절한 안내와 세심한 서비스로 케이블카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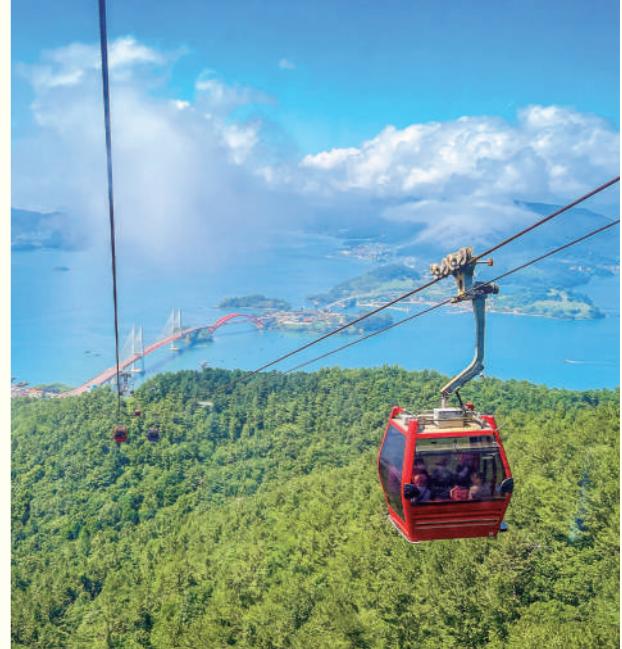
✿ 케이블카사업팀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나요?

케이블카사업팀의 하루는 안전점검과 운영관리, 고객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 준비: 일일 점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당일 운행 계획을 공유합니다. 운행 전 정류장 설비와 기계의 일상 점검·정비를 실시하며, 케이블카 시운전을 통해 기계·전기·통신 설비 등이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운행 시작: 현장 근무자는 고객 응대와 안전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기상 변화나 이용객 상황에 따라 운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운행 종료: 당일 운행 중 확인된 사항을 점검·조치하고, 운행일지 및 일상점검일지 정리, 수입 정산 등 마무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여러 분야의 업무가 함께 돌아가는 만큼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팀만의 문화나 약속이 있을까요?

케이블카사업팀은 팀원끼리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앞장서서 돋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사내 메신저로 항상 소통합니다. 덕분에 위기 시에 우리가 서로의 가장 큰 힘이 되지요. 케이블카의 안전·운영·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사천을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케이블카를 찾은 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장면입니다.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희 직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사랑해 주시는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한 줄씩 부탁드립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즐겁게,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케이블카' 그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천시의 하늘 위를 묵묵히 지키는 그들. 케이블카사업팀이 있기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 사람들의 미소와 이야기, 추억을 향한 이들의 노력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더욱 빛난다.

오늘도 빛★나는, 주른 물결~~~~ 같은 사람

체육시설팀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서유리 수영강사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첫 호흡을 지켜보는 사람. 물 속에서 전해지는 웃음과 격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수영이 재밌어요”라는 한 마디가 하루의 보람이 된다. 오늘도 물결을 따라 빛나는 서유리 강사를 만났다.

~~~작은 격려가 누군가의 자신감

2019년 1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으로 발령받은 서유리 강사는 올해로 6년째 수영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성인반, 4시와 5시는 어린이반, 7시는 성인반까지. 나이와 수준이 다른 수강생들이 물결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한다.

“회원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다 보니, 웃음소리로 수영장이 늘 활기차답니다.”

그의 수업 분위기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초급이든 고급이든 서로 응원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서유리 강사는 “강습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많지만, 물이 무서워 늘 가슴이 답답해하던 회원이 어느 날 ‘선생님, 저 이제 물에 뛸 수 있어요!’ 하며 웃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작은 변화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오랜 두려움을 넘어선 ‘첫 자신감’이었다.



~~~낯설고 떨리는 수영장에서 즐거운 공간으로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물은 낯설고 두렵기만 하다. 그러나 서유리 강사의 손길과 밝은 미소가 있다면 학생들도 두려움을 떨치며 차츰 즐거움을 느낀다. “선생님 덕분에 수영이 즐거워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가 전한 한 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게 참 감사하죠.” 회원들이 남긴 칭찬글에서도 그녀의 진심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영 회원

정확한 자세 교정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늘 고민되던
스타트도 자신이 생깁니다.



최*인 회원

선생님 덕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이제는 수영이 제 일상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강*숙 회원

모두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쳐주셔요.
선생님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진 회원

우리 반의 활력소인 선생님,
항상 웃으며 수업에 집중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칭찬의 공통점은 ‘정성’과 ‘밝은 에너지’였다. 그녀는 수영장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미소로 회원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일깨운다.

~~~즐겁게 배우는 시간의 기억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서유리 강사는 “회원들이 ‘수영장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게, 늘 밝은 에너지로 수업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누구에게나 수영은 낯설 수 있지만, 제 수업에서는 즐겁게 배우는 시간으로 기억 되길 바라요.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강사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도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서유리 강사, 그의 친절과 열정이 사천의 수영장을 더욱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만난 사람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기술인의 하루 따라가기

환경시설1팀 조규덕 대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맑은 물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 깨끗하고 맑은 물, 투명하고 무색무취의 물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잡아내는 기술인들. 환경시설1팀의 조규덕 대리를 만나 하수처리와 공정 관리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여다보았다.



투명함을 만드는 기술인의 일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규덕 대리입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공정 제어와 여과 설비 세척 등 환경 분야 공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리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침부터 퇴근까지의 전반적인 일과가 궁금합니다.

출근 후 커피 한잔을 타고, 전날 설비 이상과 특이 사항을 먼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 하수유입동, 1·2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슬러지 처리시설, 최종 방류구 등 주요 시설을 순회 점검합니다.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슬러지 농도·pH 등을 조정해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오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 일지를 작성하며 장비 정비나 운전 조정을 수행합니다. 퇴근 전에는 하루 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마무리합니다.

▣ '이 일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정 운영입니다. 특히 악취는 시민들의 생활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의 운전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즉시 조치해,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공기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업무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책임감은 어떤가요?

하수처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시민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마다 '내 일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 다른 팀원과 협력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구역별 책임제를 두고 업무를 분담합니다. 저는 환경공정 모니터링과 최적화 업무를 맡고, 다른 팀원은 전기기계 장비 점검과 정비를 담당합니다. 점검 중 이상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유하고, 팀 단위로 해결책을 찾아 공정을 안정화합니다.

▣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현장 기술인의 노력'이 있을까요?

저희는 하루종일 HMI 시스템으로 수질 농도와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펌프·송풍기·슬러지 처리 시설의 미세한 이상까지 점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하수처리 시설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규덕 대리의 [하루]를 따라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맑은 물을 위한 노력



09:00~12:00

본격적인 현장 점검

오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나요?

HMI 시스템으로 전날 이슈를 확인한 뒤, 하수 유입조부터 침전지·생물반응조까지 순회 점검합니다. 설비 운전 상태와 수질 지표(BOD, TOC, SS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DO나 MLSS를 조정합니다.

점검 중 특히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1차·2차 침전지 슬러지 상태
- 펌프·송풍기 운전 상태
- DO*·MLSS*·pH 등 공정 수치
- HMI* 경보 발생 구간

작은 이상도 공정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살피는 부분들입니다.

*HMI 시스템 하수처리과정을 도식화하여 실시간 운전 및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제어시스템

*DO(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HMI 시스템 전체 부유물질 농도(미생물+고형물)를 의미하며, 미생물량과 생물학적 처리능력 등을 판단하는 핵심 값



하루 동안 오염된 물이 다시 맑은 물로 돌아가기까지.
환경시스템의 작업 과정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으로 꽉 차 있다.

15:00~17:00

오후, 긴장의 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HMI 시스템 경보, 장비 상태, 공정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며 즉시 원인을 파악합니다. 필요하면 팀원들과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공정을 안정화한 뒤 보고 및 기록을 남깁니다.

기억에 남는 '숙련된 순간'이 있다면?

추운 겨울, 약품 펌프 동파로 약품 누수가 최종침전지까지 유입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HMI 데이터와 현장을 빠르게 분석해 유입 게이트와 반송 슬러지량을 조정하고, 수질 이상을 막아 공정을 안정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12:00~15:00

점심시간 이후, 다시 현장으로

오후에는 어떤 업무가 중심인가요?

슬러지 처리시설과 방류수 공정, 펌프·송풍기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하며 필요 시 운전 조정과 정비를 진행합니다. HMI 데이터와 공정 기록을 함께 보며 오전 점검과 연계한 하루 운영 상황을 분석합니다.

외부로 이동할 때, 어떤 순서나 우선순위로 일정을 조정하시나요?

긴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팀원과 소통해 일정을 신속하게 조정합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숨겨진 일'이 있다면?

탈수 및 건조 등 장비의 미세한 변화까지 매일 감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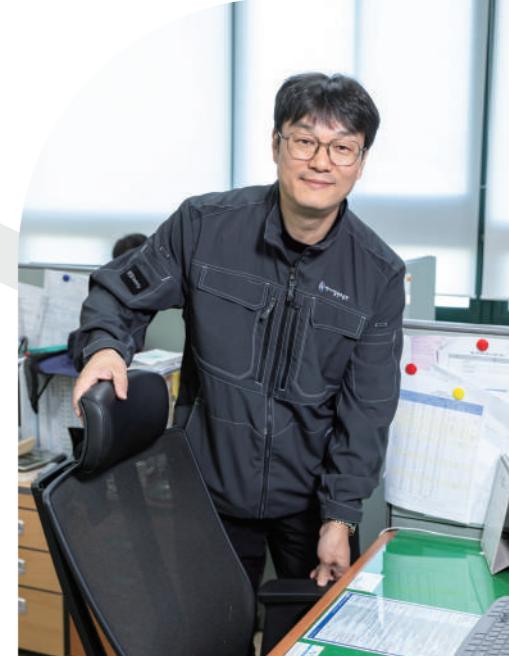


17:30~18:00

두근거리는 퇴근 전 30분

하루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장비 운전 상태와 공정 수치를 최종 점검하고, 필요 시 기록과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하루를 마칩니다.



집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람들, 환경시설1팀 재능봉사 동아리 '만능수리공'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는 망가진 집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불이 켜지고, 갈라졌던 벽이 메워지고,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린다.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1팀의 '만능수리공' 이야기를 이정우 과장에게 들어보았다.



작은 손길이 만드는 큰 변화

집이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온기를 품은 곳이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1팀에는 이 온기를 다시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다. 낡은 전등을 갈고, 빠걱이는 문을 고치며, 오래된 벽에 새 색을 입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만능수리공'이다. 오늘도 이들은 현장의 기술과 마음을 모아, 누군가의 일상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 안녕하세요. 환경시설1팀의 동아리

'만능수리공'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능수리공'은 환경시설1팀 소속으로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능수리공은 공단의 사회공헌사업 활동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서는 동아리로 부르며 매년 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쯤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하고 있고요. 팀원들이 대부분 환경·전기·기계를 전공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만능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지요.

▶ '만능수리공'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처음에는 농촌 지역의 노후된 분전반 전등 교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안전바 설치, 창문, 대문, 담벼락, 도색까지 가능해졌죠. 주로 농촌 지역을 많이 갔는데요. 대상은 소도시의 시골 어르신들이 대다수였어요.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저희가 알아보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을 방문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두 집 정도를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 늘어서 지금은 여섯 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업무 중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현장 에피소드나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특별히 생각 나는 건 서포 지역에 계시는 청각 장애인분의 가정에서 3일 정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말동무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엔 슬며시 가족 앨범 사진을 꺼내 오



셔서 가족 자랑을 하시며 소녀같이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다들 뭐 하나라도 조금 더 도와드리고 가자고 일심동체로 일하면서, 진짜 기분 좋게 끝낸 집이었어요.

▶ '만능수리공'만의 협업 방식이나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 업무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만능수리공 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그 현장의 팀장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우리도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좋으면, 직위를 막론하고 박수를 치며 서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보는 직장동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만능수리공' 활동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만능수리공'으로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만능수리공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과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서로 돋고 사는 길에 만능수리공 활동으로 세상의 각박함을 덜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고, 벽이 다시 서는 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적을 만든다. 물을 정화하는 사람들이 물처럼 곳곳으로 뿐어가 집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천 곳곳에 오래도록 전해지길 바란다.



Mungyeong Sacheon 환경을 품고, 사천에 살다

환경시설2팀 권오덕 사원이 전하는 '동행'

경북 문경에서 사천까지 내려온 권오덕 사원은 어느덧

사천에 산 지 3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권오덕 사원이 전하는 사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산과 바다, 다른 풍경이지만 마음의 고향

경북 문경에서 나고 자란 권오덕 사원은 IMF 시절 금융회사와 개인 운송업을 거쳐 1999년 사천으로 내려왔다. 처가집 사업을 돋기 위해 잠시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어느덧 사천살이 30년. 사천시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환경시설2팀 상황실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상황을 감시·제어하며 사천의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세 번은 변해버린 셈이죠.” 27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가 웃었다. 문경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전국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곳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월악산, 충주호와 단양팔경이 위치한 산속이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고장으로, 옛날 영남의 인재들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넘던 문경새재가 남아있어, 그의 정서에는 산이 더 가까웠다. 그는 문경에서 유명한 오미자와 약돌 데자 등을 소개하며 꼭 먹어보라고 강조했다.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따금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어머니 생각에 문경에 대한 정이 이어진다며 말하는 그에게 어머니와 문경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명절 때마다 온 동네가 윷놀이, 노래자랑으로 떠들썩했었죠. 지금은 노인들이 많아 조용하고 단출해졌지만요.” 산골 문경에서 바닷가 사천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지부터 산과 대비되는 바다였고, 사투리도 다르니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제사를 지내면, 고향 제사상을 생각하며 요새 말로 ‘웃프다’는 권오덕 사원. “사천에선 생선이 한 상 가득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놀랐죠. ‘역시 바닷가구나’ 하면서요. 저희 조상님들은 생선이라고는 조기밖에 못 드셨을 걸요. 아참! 명태포가 있었네요!” 그는 어느새 그런 차이를 웃으며 이야기할 만큼 사천에 녹아들었다. “예전엔 회나 해산물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든 다 잘 먹습니다. 친구들이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면, 저는 ‘이젠 잘나가야 삼천포로 간다’고 해요. 하하.”

권오덕 사원이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천 전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이곳저곳 다 다녀본 그는 지역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현장을 지키는 베테랑이지만, 그에게도 한때 낯설었던 사천의 풍경이 있었다. “산에서 살던 사람이 바다를 품은 도시에서 일하게 됐으니, 그게 바로 저에게는 ‘동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살 이후로 사천에서 지낸 세월이 더 깁니다. 이제 사천은 저에게 완전히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27년의 세월 동안 그는 사천의 변화와 함께 사천사람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오늘도 하수처리시설을 지키며, 깨끗한 도시의 미래를 묵묵히 채워가고 있다.

20년 지기,

같은 물결 위에서 만나다

수영장에서 시작된 인연

수영장에서 시작된 한 인연이 스무 해를 건너 다시 같은 직장에서 이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 중인 양철민·박재희 사원은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들이다. 어린 시절 진주에서 선수로 처음 만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호흡을 함께 이어왔다. 2000년 초반 무렵, 수영을 막 시작한 초등학생 박재희 군에게 중학생 선배 양철민 군은 엄격한 운동부 분위기 속 '무서운 선배'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어린 관심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실력이 오르던 박재희 씨를 보면, 양철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후배'를 더 챙기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쌓인 '운동부 정(情)'은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밑바탕이 되었다.

두 사람의 길은 이후에도 자주 맞닿았다. 경남체육고등학교에서 함께 훈련했고, 졸업 후에도 진주 남도 레포츠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경상대 수영장 등 여러 현장을 나란히 거쳤다. 잠시 군 복무 기간만 떨어졌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 방식과 성향을 익혀왔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게 된 데에도 양철민 강사의 권유가 컸다. 코로나 시기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던 박재희 강사에게 양철민 강사는 안정된 직장을 가져보라며 여러 번 입사를 권했고, 결국 체육시설팀에서 정식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 지금 박재희 강사는 "수영을 좋아하는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며 웃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양철민·박재희 수영강사



양철민 수영강사

박재희 수영강사



어린 시절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은, 어느 새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시간을 지나 다시 같은 물결 위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스무 해가 넘는 인연이 현재의 직장 동료로 이어지기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꾸준함과 신뢰로 쌓인 관계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둘에게 서로의 장점을 물으니, 박재희 강사는 양철민 강사를 "꼼꼼하고 세심하며, 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양철민 강사 역시 "오래 본 후배라 장단점을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지만, 오랜 세월 옆에서 봄은 성실함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든든하게 말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함께 근무하면서 새롭게 본 모습들이, 서로로 하여금 책임감과 조직 안에서의 역할로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양철민 강사의 꼼꼼함과 박재희 강사의 성실함은 팀 안에서 균형을 만드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둘에게서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수영을 즐기는 것이었다. 양철민 강사는 무엇보다 "퇴직할 때까지 서로 다치지 않고, 지금처럼 든든한 동료로 남고 싶다"는 말로 후배이자 동료를 향한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다. 그 말을 이어 박재희 강사는 다소 수줍게 "저는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은 수영장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서로가 있어서 더 힘이 되는 사람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같은 물결 위에서 흘러갈 예정이다.

가을 휴가 보내기

글

안전감사팀 성동수 주임

가을이면 하늘은 높아지고, 숲은 모든 색깔을 뽐내며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땅의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가 아닌 가을 휴가를 소망한다. 이번 가을은 오래가길 바라며 가을을 깊게 즐기는 방법으로, '가을 산사 여행'을 추천한다. 안전감사팀 성동수 주임이 다녀온 순천의 선암사 이야기를 들어보자.



순천 선암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찾은 여유

가을은 웬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는 계절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상쾌한 마음에 자연스레 하늘을 올려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을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번 가을, 저는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순천 선암사를 찾았습니다. 선암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 중 한 곳으로,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해주는 가을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햇살아래 머무는 시간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햇살이 몸과 마음을 감싸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길을 걸어 조선 숙종때 축조된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보물 제400호)를 지나 사찰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그 속에 머무르며, 옛것의 아름다움과 나무, 공기와 바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암사는 예로부터 차(茶) 전통이 살아 있는 사찰로 유명합니다. 사찰 인근 다도체험관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사와 함께 한 따뜻한 밥상

선암사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입구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시냇가 옆에 자리한 식당은 소박하지만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으며,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냄새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도토리묵, 더덕무침, 나물 등 30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은 자연의 맛 그대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산나물의 향,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의 온기,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음까지 배부른 식사'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것이다

선암사는 가을하늘 아래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 속 작은 소음들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곳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여유'라는 단어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암사를 포함한 7곳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순천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가을 산사 여행 TIP

- ① 편한 복장과 가벼운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추천해요.
- ② 사찰 안에서는 차분한 말투, 부처님 앞에서는 모자 탈의 등 기본 매너를 지켜주세요.
- ③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기! 자연과 함께하는 산사 여행의 기본 예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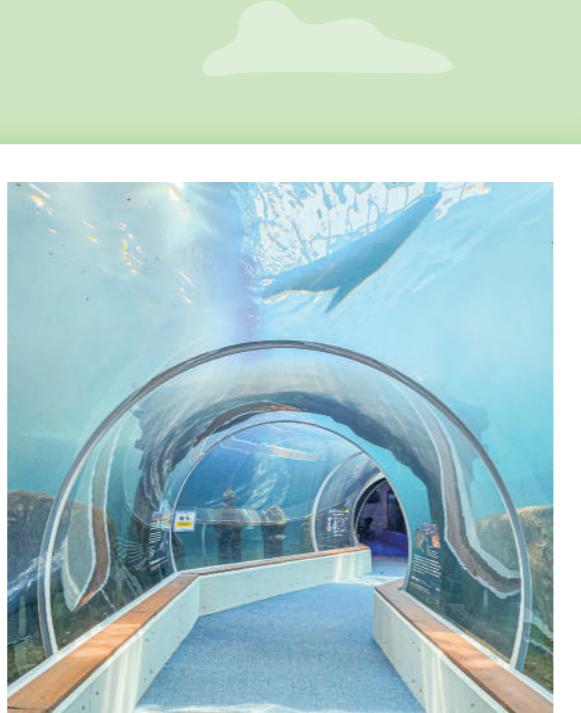
경남 사천, 가을 여행지 추천 BEST 4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동환 서포터즈's PICK



사천의 랜드마크 '사천바다케이블카'

2018년 4월 13일 정식 개장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관광객들이 늘어 현재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한국인이라면 꼭 가보아야 할 유명 국내 여행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해상 구간 가장 높은 지점은 무려 74m로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아찔한 스릴과 쾌감을 선사해 주는데요. 광활하게 펼쳐진 사천의 에메랄드 빛 풍경도 감상하며 다이나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 아쿠아리움에서는 하마 등 정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이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아 답답한 느낌 없이 화사한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조 규모와 면적 등이 상당히 커서 자연 생태에 가까운 전시 환경을 유지하는 점이 보기 좋고요. 아쿠아리움 바로 위 지상에는 동물원도 마련되어 있어 하이에나, 꽃사슴, 펭귄, 사막 여우, 일본원숭이 등 여러 동물들도 많이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SNS 서포터즈가 꼽은 사천의 가을 여행지는 어디일까?
임동환 서포터즈가 인천광역시에서 전해온 사천 여행지 BEST 4를 만나보자.



무지개빛 해안 도로

무지개빛 해안도로는 무지개 색깔 방호벽이 당간마당 쪽부터 시작해서 대포항까지 약 3~4km 정도 매우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당간마당에서 시작해서 부간교갯벌탐방로 쪽으로 오면 간조 때에는 이렇게 광활한 갯벌과 함께 황홀한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끝 지점인 대포항 쪽으로 오면 방파제 길이 이어져 있고, 방파제 끝에는 선으로 된 얼굴 조형물이 있어, 얼굴 안에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담는 멋진 사진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사천항공우주박물관&과학관

사천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 산업과 우주 역사 등을 전시하며 미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전시 공간이라 아이와 함께 방문해 보기 좋은 곳입니다. 같이 운영되는 항공우주과학관은 아이들이 우주 과학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도록 화성 탐사 시뮬레이션, 우주 정거장 속 우주인 되어보기, 블랙이글 전투기 조종 체험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기다 갈 수 있습니다.



MBTI 유형에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다! 엠비버트&오토로버트

혹시 주변에 '내향인-호소인' 또는 '사회생활용 외향인-호소인'이 있나요?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MBTI 유형이 나타났다고 한다. 바로 '엠비버트(Ambivert)'와 '오토로버트(Otrovert)', 이름만 봐도 복잡한 이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너 E야, Io?"

이제 더는 '너 E야, Io?'라는 질문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 질문을 하는 큰 이유는 상대가 내향적(I)인지 외향적(E)인지를 파악해서 나와 '잘 맞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인데, 사회 생활할 때는 E이기도 해." 같은 방어막을 치기도 한다.

때로 외향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 사실 Io."라고 해서 '내향호소인'이라고 놀림 받기도 하는데… 슬퍼하지말라. 오늘 이 개념을 알게된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혹은 당신에게 보다 정확한 용어가 생겼으니까.

중간과 경계 어딘가

우측의 테스트에서 ①이 많다면 엠비버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혼자있는 시간도 소중한 사람. 상황에 따라 내향적이기도, 외향적이기도 한 균형형 타입! 반면 ②가 더 많다면 오토로버트, 내향·외향보단 '의미'와 '진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보단 나다운 순간을 선택하는 타입이다.

어떤가, 이제 조금은 나 또는 내 친구를 설명하기 쉬워졌는지? 16가지도 많다고 생각했던 MBTI,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흥미로운 현상이다. 앞으로 서로를 향해 더 다양하고 깊어질 이해의 폭을 기대해 본다.



엠비버트 vs 오토로버트

각 문항마다 더 가까운 쪽(① 또는 ②)을 선택하세요!

모임이 생기면 나는

- ① 그날 기분따라 갈지 말지 정해요.
- ② 의미 없는 자리는 굳이 가지 않아요.

나에게 더 편안한 일상은?

- ① 사람들과 웃고 나서, 조용히 혼자 쉴 때.
- ②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 ① 분위기 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 ②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요.

누가 "요즘 왜 혼자 지내?" 라고 물어본다면?

- ①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 ②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나 같아요.

내가 바라는 삶은?

- ① 일, 사람, 휴식 고르게 어우러진 삶
- ② 진짜 내 마음이 가는 일에 집중하는 삶



사천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공단 시설 연중무료 개방

• 이용대상: 사천시민

• 시설목록:

구분	주소	운영시간	비고
버스킹무대	사천시 사천대로 18	연중무휴	수용인원: 40명
대회의실	사천시 사천대로 20	평일 10:00~17:00	수용인원: 60명
시청각실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평일 9:00~22:00	수용인원: 50명
테니스장(사천)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연중무휴 7:00~22:00	1개 코트
테니스장(삼천포)	사천시 환경길 55	연중무휴 9:00~18:00	1개 코트

• 이용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및 방문접수

주거환경 개선 '만능수리공' 서비스

- 지원일정: 연간 상하반기 2회 진행
- 지원대상: 취약 계층(독거노인,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지원사항: 전기(전열, 전등) 수선, 상수도 시설 점검, 창문수선, 도색, 생활폐기물 처리 등
- 문의사항: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055-831-7267)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서비스

- 지원일정: 연중
- 지원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내 영세업체
- 지원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방법에 대한 수처리 기술 지원 및 수처리 법규 준수 지도
- 신청방법: 전화(055-831-7262) 또는 팩스(055-831-7269) 접수

환경시설 견학 프로그램

-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 시설목록:

견학시설	주소	운영시간	
		전화	팩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055-831-7267	055-831-7269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환경길 55	055-831-7282	055-831-7289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실천

- 우리 공단은 일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천일자: 매주 수요일
- 실천내용: 정시퇴근 및 회식·오후 회의 지양

성희롱·직장내 괴롭힘·갑질 피해 / 부패비리·부조리 신고센터

- 홈페이지: 윤리경영 > 신고(상담)센터
- 챗봇: (직원)신고센터
- 사내 메신저: 클린신고센터
- 이메일: clean@scfmc.or.kr
- 전화: 055-831-7215
- 방문: 안전감사팀 윤리인권담당

안전신문고

- 홈페이지: 안전경영 > 안전신문고
- 챗봇: (직원)신고센터
- 이메일: scfmc@scfmc.or.kr
- 전화: 055-831-7214
- 방문: 안전감사팀 재난안전담당

인권침해고충상담 신고센터

- 전화: 055-831-7204
- 방문: 경영기획팀 인사노무담당



공단 외부 구제절차 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 여성가족부: 국번없이 1366